

I 최남선과 에크리튀르

II 근대 매체와 문학 언어의 질서화

1. 근대 매체의 등장과 국문 글쓰기의 이념 및 분화
 - 1) 《독립신문》과 국문 글쓰기의 기원
 - 2) 잡지의 출현과 근대 지식의 서사
2. 1910년대 신문 연재소설의 전개와 굴절
 - 1) 소문의 사실화와 사실로서의 소설
 - 2) 신문 연재소설의 삽화와 소설의 연극화
3. 최남선의 글쓰기에 나타난 원근법적 시선과 일인칭 화자의 출현
 - 1) <소년>의 국민국가 기획과 읽는 독자를 향한 글쓰기
 - 2) 일인칭 화자를 통한 시선의 독립

III 매체 활동과 문화 내셔널리즘

1. ‘신보잡지광’의 문명 체험과 근대지식으로서의 잡지
 - 1) 문명의 형식과 잡지의 근대성
 - 2) 근대적 지식의 선택과 배제
2. 잡지의 근대적 감각과 시각 자료의 정치적 무의식
 - 1) 문명의 표상과 영웅 이미지
 - 2) 권력의 표상과 제복 이미지
3. 문예현상 공모를 통한 글쓰기의 제도화
 - 1) 독자 투고의 제도화
 - 2) 신문관의 시문체와 한국근대소설의 문체

IV 문화 보편주의의 전개와 민족의 재발견

1. 역사 연구로의 전환과 문화 내셔널리즘
 - 1) 검열의 현실과 신문관의 해체
 - 2) ‘밖’의 발견과 역사 연구로의 전환
2. 지리학적 시선을 통한 민족의 재인식
 - 1) 심상지리와 파노라마적 풍경 묘사
 - 2) 순례자 의식과 민족적 가치의 생성
3. 근대적 전통으로서의 시조
 - 1) 한국근대문학의 ‘근대’와 ‘문학’이라는 문제
 - 2) 시조의 근대성과 허구의 모더니티

V 신화의 보편성과 초월되는 민족

1. 문화 권역의 확장과 제국적 욕망
 - 1) 민족적인 것과 친일적인 것의 경계
 - 2)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이질성

2. 만주 시절 기행문에 나타난 타자화의 논리
 - 1) 북방문화권 속의 조선과 만주
 - 2) <천산유기> 속의 조선과 최남선의 분열적 욕망
3. 식민지 지식인의 역설
 - 1) 경계 위의 최남선
 - 2) 제국 욕망과 민족 혁명

VI 최남선과 근대·언어·민족

참고문헌